

신앙의 위치 - 어디에 서 있는가?

(삼상23:1-5)

서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헤렛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유대 땅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략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이 아닌 도망자인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왕국의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국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삼상23:2). 부하들이 두려워함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고(삼상23:4),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며,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 보이는 것들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합니다(딤후3:13).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1.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방법과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이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 광야 길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 나의 광야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2.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가.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붙잡고 누리게 하옵소서.

-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로 진정한 힘 되시는 하나님만 배경 삼게 하옵소서(빌3:7-8, 20).

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보좌의 배경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잠18:10).

결론: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가치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손해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